

아직도 농촌지역에는
기생충병이 만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더우기 전국이
일일생활권에 있어, 농촌에서
재배한 채소류나 육류가 쉽게
도심지 시장에까지 직판되어
식품매개성 기생충분포에
관해서는 도시 농촌을
구별하기 어렵게된 실정이다.

媒介性) 기생충들이어서 봄철이 되면서
우리에게 감염될 기회가 많아질 것이 예
상된다. 그 이유는 해동이 되면서 농촌
에서는 농사일로 휴과 접촉될 기회가 많
아지고 아이들인 경우 휴장난이 심해질
것이며 각종 채소류가 어떤 경로를 통하
였든지 생산되고 시판되기 때문이다.

십여년 전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인체
기생충 감염률이 현저히 저하되어 일본
과 같은 선진국 패턴으로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하나 아직도 농촌지역에는
기생충병이 만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더우기 전국이 일일 생활권에 있어, 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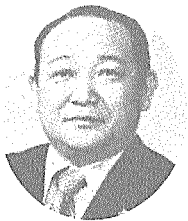
년 2회 정기적인 기생충검사로 건강을 지키자.

해독과 피해 그리고 예방대책

촌에서 재배한 채소류나 육류가 쉽게
도심지 시장에까지 직판되어 식품매개성
기생충분포에 관해서는 도시 농촌을 구
별하기 어렵게된 실정이다.

우선 몇가지 장내 기생충의 해독과
피해를 예로 들고 그 예방대책을 적어
보면서 우리의 건강 관리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 우리국민 거개가 감염 경험이
있는 회충을 들 수 있다. 회충은 회충
란에 오염된 채소류나 식품을 섭취하였
을때나 휴장난을 하고 난 다음 더러워진
손을 통하여 우리몸에 침입될 수 있다.
회충란은 단단한 세겜의 막으로 둘러
싸여 있어 추운 겨울이나 건조시와 같은
나쁜 환경에서도 상당기간 생존이 가능
하다. 일단 회충에 감염되면 숙주(宿主)



이 근 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인체기생충
은 약 45종에 이르고 있으나 장관내에
기생하는 기생충은 대부분 토양매개성
(土壤媒介性)이거나 식품매개성(食品



◀ 회충은 회충란에 오염된 채소류나 식품을 섭취하였을때나 흙장난을 하고 난 다음 더러워진 손을 통하여 우리 몸에 침입될 수 있다.

인 우리는 영양물질을 탈취 당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때로는 회충이 기생하고 있는 소장을 떠나 담관, 간실질, 충수돌기등에 들어가 기계적 손상을 입히며 어쩌다 기관에 머물러 질식사를 일으키거나 심장까지 침입하는 경우도 있다. 일면 회충이 분비하는 독성물질에 의하여 과민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둘째로 십이지장충(채독벌레)은 피부 감염이 가능한 기생충으로서 만연지역에서 맨발로 거니는 것은 무기없이 전쟁터를 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십이지장충 한 마리가 하루 평균 0.5 ml의 피를 장점막에서 흡혈한다고 한다. 그러면 1년간에는 약 180 ml의 피가 한 마리의 십이지장충에 의해 소모되며 보통 한 감염자에 20마리가 기생한다면 이들이 흡혈하는 흡혈량은 약 4ℓ씩 해당한다. 우리나라 인구 4,000만명중 그 1%가 감염되었다고 하면 약 40만명이 4ℓ씩의 피를 빨리게 되므로 그 소모량은 160만ℓ가 되

는 셈이다. 혈액500ml의 값을5,000원으로 잡아 본다면 그 값은160억원이 되는 놀라운 실험량이다.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경제절약은 기생충관리 사업과 직결됨을 알 수 있다.

미국 국민이 선진국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되는 첫 동기는 그들의 건강에 있는 것이다. 그들의 평균수명이 1900년에 49세였던것이 1951년에는 68세 이상이 되었다. 기생충질환을 위시한 각종 질병이 정복되면서 소아사망률이 급격히 저하되었고 국민의 95% 이상이 최소한 그날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을 주지않을 만큼의 건강이 유지된다는데 그 저력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국민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10년전과는 격세지감(隔世之感)이 없지 않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기생충왕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칭호를 받은 적도 있었는데 이는 기생충질환에 대한 국민의 무지와 부

관심에 있었던 것이다. 조금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다면 필연 선진제국의 국민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봄철에 예상되는 기생충만연의 예방책을 열거해 보고자 한다.

첫째 분뇨의 위생적 처리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장내기생충은 장관 내에서 산란하게 되므로 분뇨의 위생적 처리야 말로 기생충 박멸에 첩경이 되는 셈이다. 도시에서는 수세식 변소보급이 널리되어 있으나 반드시 정화조(淨化槽)를 설치하여 씩혀서 하수로 버려져야 할 것이다. 서울만해도 하루에 분뇨배출량이 대략 16,000톤이 되는데 그 행방이 어떠한가?

처리없이 한강으로 유입된다면 수질 오염은 물론이러니와 기생충병을 위시한 각종 수인성 질환의 유행을 막을 길이 없게 될 것이다. 분변처리 시설의 확충이 도시행정에 으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인 경우에는 분뇨 분리식이나 삼조식 변소와 같은 변소개량이 있어야겠고 인분을 시비할 때는 분류(糞溜)설치를 장려하여 완전히 씩혀거나 퇴비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채소류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5회 이상 씻어서 먹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각종 세제가 널리 광고되고 있으나 흐르는 물에 씻는 것 만큼 안전한 것이 없다. 5회 이상을 씻는다고 하면 부착되었던 기생충란은 거의 제거될 것이다.

셋째, 날 음식은 피하고 어류나 육류는 익혀서 먹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기생충란이나 「씨스트」들은 열에 약하기 때문이다. 회충란인 경우 60°C 전후에

서 1~2분내에 사멸됨을 볼수 있다.

넷째, 인분을 시비한 밭에는 맨발로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십이지장충과 같은 피부침입 기생충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어린이들의 방분(放糞)이나 흙장난을 금하고 항상 손을 깨끗이 씻는 버릇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장내기생충은 토양 매개성이라는데 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적어도 년 2회 기생충검사를 받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구충제를 복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개인 위생에 관한 것이 되겠으나 지역 사회의 건강관리라는 입장에서는 집단구충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일곱째, 기생충질환에 대한 계몽으로 무지를 타파해야 할 것이다. 이는 보건교육의 일환이 되겠는데 장기적이고도 효율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질병없는 지역 사회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구성원 개개인의 철저한 건강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차제에 희망찬 봄철을 맞으면서 한문쯤 「기생충관리」라는 명제를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관리책 몇 가지를 재고한 것이다.

(필자=연세대학교 의대학교수·의박)

